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7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7월 14일 2025년 9월 5일 금요일

‘활의 나라’ 金10 쏜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활시위를 당기며 연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서 개막 12일까지 76개국 선수 731명 격돌

리커브·컴파운드 10개 종목 메달 사냥 … 5·18 민주광장에서 결승전

세계 양궁스타들이 5일부터 광주에서 최고 궁사를 가린다. 〈관련기사 2·18면〉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이날부터 12일까지 8일간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세계 76개국 731명이 참가해 금메달 10개를 놓고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서 태극궁사들이 세계 최강 대한민국의 명성을 이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리커브·컴파운드 10개 세부종목에서 메달을 다툰다.

예선과 토너먼트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16강 이후 결승은 도심 한복판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치른다.

결승 세션은 7일부터 12일까지 6일 연속 운영되며 관중 입장은 오후 1시30분, 프리쇼는 1시40분에 시작한다. ‘도심 결승’이라는 파격적 무대 구성은 경기 몰입도와 시민 체감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첫 메달 레이스는 오는 7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2시5분 혼성 컴파운드 3·4위전을 시작으로 2시24분 결승, 이어 남녀 단체전이 진행된다.

8일에는 컴파운드 남자 개인 금메달 결정전, 9일에는 여자 개인 결승전이 치러지고, 10일에는 리커브 혼성·남녀 단체 결승전이 열린다.

대회 종료를 이틀 앞둔 11일에는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리커브 남자, 12일 리커브 여자 결승이 치러진다.

세계선수권에서 한 선수가 노릴 수 있는 ‘트리플 크라운’은 개인·단체·혼성 3관왕이다.

홈 적응도와 두터운 엔트리, 도심 결승의 몰입감이 결합하면 한국의 다관왕 배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국 리커브 남자는 김우진·김제덕·이우석, 여자는 임시현·안산·강채영이 나선다. 컴파운드 남자는 최용희·김종호·최은규, 여자는 소채원·심수인·한승연으로 라인업을 꾸렸다.

리커브는 파리에서 입증한 전 종목 우승의 기세와 홈 이점을 더해 개인·단체·혼성 전 라인을 ‘금빛 대진’으로 설계했다.

김우진은 세계선수권 3관왕 경험을 지녔고, 안산·임시현은 대형 무대에서 결승 운영 능력을 이미 증명했다. 맞상대 전력으로는 남자 마르쿠스 달메이다(브라질)와 튀르키예·프랑스 강자, 여자 케이시 카우홀드(미국) 등이 꼽힌다. 컴파운드는 유럽·북미의 강세 속에서도 최근 국제대회 단체전 정상으로 저력을 확인해 안방 메달 사냥에 나선다. 관건은 세트·엔드 관리, 바람 대응, 관중 소음 속 교대 사격 루틴의 안정성이다.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인 5·18민주광장이 세계 결승 무대로 변모한다. 세계 각국 중계 화면에 결승 무대가 노출돼 광주도시 브랜드가치를 끌어올리는 ‘현장 마케팅’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는 유니버시아드,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을 바탕으로 교통·안전·관람 동선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등 대회를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결승전이 치러지는 5·18민주광장 관중 게이트는 오후 1시30분에 열리고 프리쇼가 이어진다.

경기 편성은 혼성·단체·개인 순으로 진행되는 블록 운영이 일반적이며, 금메달전은 각 블록의 하이라이트에 배치된다. 예·본선은 상무지구 인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하루 종일 이어져 선수들의 루틴과 경기 리듬을 가까이 볼 수 있다.

광주는 ‘활의 도시’ 정체성을 살려 신창동 고대 활 유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일대 문화 콘텐츠를 연계하는 도시 브랜딩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조직위는 “도심 중심부 결승은 스포츠 도시 외교의 실험장”이라며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시민에게 자금심을 심어주는 성공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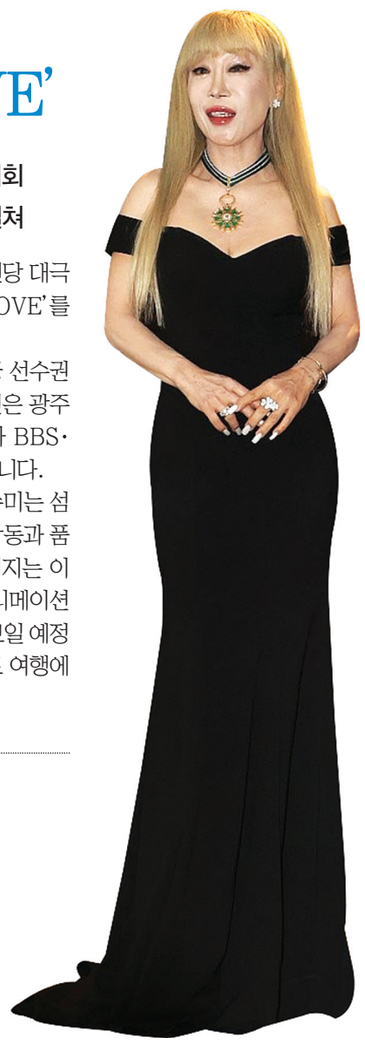
/특별취재팀=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금타 화재, 방재설비 먹통 안전 대책 허술 ▶6면
북스-‘주말엔 산사’ ‘탄소라는 세계’ ▶14·15면
전라도가 좋다, 전라도 외국인 - 이민 정책 ▶22면

알립니다

조수미 ‘광주 in LOVE’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70년·세계양궁선수권대회 9월 16일 광주예술의전당서 축하 공연 무대 펼쳐

광주일보사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조수미 in LOVE’를 개최합니다.

호남예술제 70주년을 기념하고 ‘2025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연은 광주일보사와 강화주식회사가 주최·주관하고 광주광역시와 BBS·광주대학교·나코스·(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이 후원합니다.

그동안 세계 무대 정상에서 활동해온 프리마돈나 조수미는 섬세하면서도 매혹적인 음색과 뛰어난 음악적 해석으로 감동과 품격을 선사해왔습니다. 내년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도 오페라와 가곡은 물론 뮤지컬, 영화·애니메이션 OST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을의 문턱, 조수미와 함께하는 행복한 콘서트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9월 16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 주최·주관 : 광주일보·강화주식회사
- 후원 : 광주광역시·BBS·광주대학교·나코스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光州日報社

광주시, 침수 예방 복구 사업비 822억 긴급 투입

복개하천 복원·배수시설 확충

광주시가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개하천 복원과 대규모 배수시설 확충에 나선다. 양동 복개상가와 서방천 복개도로를 되살리는 복원 사업에 1조700억원, 신안교 구조개선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중기 대책에는 모두 40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재난 대응체계를 장기 구조 개선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호우 피해 복구 및 침수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기 대책은 하천 본래 기능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양동 복개상가 구간은 지하방수로 설치(7000억원)와 상가 철거·생태하천 복원사업(3700억원)에 1조738억원이 배정된다.

서방천 복개도로 구간 역시 6000억원을 들여 하천 복원과 도로 정비를 병행한다.

중기 대책도 속도를 낸다. 신안교 교차로 구조개선(600억원), 광산·북구 일원 4곳 우수저류시설 설치(854억원), 송정·첨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541억원), 영산강·용강동 등 저지대 배수펌프장 5개소 신설(805억원), 서방·극락천 등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1549억원) 등 18개 사업에 4349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우선 총 822억원을 긴급 집행해 공공시설 복구(564억원)와 주택·상가 침수 지원사업(258억원)을 추진한다. 주택은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되,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긴급 대책에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53억원), 신안교 배수펌프 설치(10억원), 차수판 설치(40억원) 등 104억원 규모 사업이 포함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난은 반복되지만 해법은 근본적이어야 한다”며 “대규모 구조 개선을 통해 ‘재난에 안전한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